

한-EU 지식재산 협력, 심사를 넘어 정책으로 확대!

- 한국 특허청,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과 청장회담 개최(3.3) -
- 향후 양청 간 협력 강화를 내용으로 ‘포괄협력 MOU’를 갱신하기로 합의 -

한-EU 간 지식재산 협력이 상표·디자인분야 심사·심판을 넘어 정책까지 확대된다. 한국 특허청과 유럽연합지식재산청(이하 EUIPO*)은 한-EU 간 지식재산 협력 프로젝트인 ‘IP 액션’을 통해 지식재산 법·제도, 중소기업 지원정책, IP금융, 위조상품 방지 등 전 방위에 걸쳐 업무협력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유럽연합(EU) 회원국의 상표·디자인·지리적표시에 관한 등록·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유럽연합 산하 기관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3. 3.(월) 14시 30분(현지시간) EUIPO 청사(스페인 알리칸테 소재)에서 EUIPO(청장 주앙 네그랑(João Negrão)와 청장회담을 개최하였다. 이번 회담에서 양청은 작년 7월 출범한 한국과 EU 간 지식재산 협력 프로젝트인 ‘IP 액션’이 양 국가의 혁신을 장려하고 지식재산 시스템을 조화롭게 발전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협력 방안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세부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향후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양청은 ‘IP 액션’ 세부 추진 과제 중 하나인 플랫폼에서의 위조상품 유통차단 및 방지와 관련된 정책경험과 노하우 공유 등 협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청 간 체결된 포괄협력 업무협약(MOU)이 금년 10월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양 청장은 ‘IP 액션’을 포함한 세부적인 협력 내용을 반영하여 올 하반기에 이를 갱신하기로 합의하였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새로운 통상환경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과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한-EU 간 지식재산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유럽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권리 확보 및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한국 특허청-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 청장회담 사진

담당 부서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제협력과	책임자	과 장	이승관 (042-481-5063)
		담당자	사무관	황영은 (042-481-5465)



사진 1 : 김완기 특허청장(왼쪽)이 3. 3.(월) 주앙 네그랑(João Negrão) 유럽 연합지식재산청(EUIPO) 청장과 회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2 : 김완기 특허청장(왼쪽 6번째)이 3. 3.(월) 주앙 네그랑(João Negrão)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 청장(왼쪽 7번째)과 회담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